

낙향이별가



[해제]

<낙향이별가>는 작자 및 창작연대가 불분명한 순국문 가사작품이다. 『낙향이별가』(23.5*34.8cm)라는 제목의 전적(典籍)에는 <낙향이별가> 외에도 제목이 불분명한 소설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가사의 본문은 <낙향이별가라>라고 표기된 제목 이후에 시작되는데, 주목되는 점은 제목의 ‘낙향’과 ‘이별가라’의 표기가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에 작품의 본문과 제목의 필체를 비교해 볼 때, 본래 ‘이별가라’만이 표기된 제목에 ‘낙향’이 덧붙여진 것으로 여겨진다. 즉, 책명(冊名)인 『낙향이별가』를 참고하여 ‘이별가라’만이 쓰여진 본래의 작품의 제목 위에 ‘낙향’을 부기(附記)한 것이라 추측되는 것이다. <낙향이별가>는 갓 혼인을 한 여인이 부부의 정도 쌓을 틈도 없이 갑자기 떠나버린 무정한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한스러운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 가문에서 절행있게 자라난 화자가 백년가약을 맺은 혼인날의 정경과 혼인 다음날, 기약도 없이 떠난 남편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상세하게 그려지고 있다. 어디로 떠나 언제 돌아오겠다는 말도 없이 떠난 님에 대한 그리움과 야속함에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던 화자는 날아가는 기러기에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그리고 작품의 후반부에는 눈물과 한숨에 젖은 머느리를 바라보는 시부모님의 미안함과 원통한 마음이 그려지는 한편, 그 어딘가에 그 누구와 함께 떠났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바빠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어서 돌아와 자식을 낳고 백년해로 하며 행복한 세월을 보내자 하는 화자의 애절하고 간절한 소망이 토로되고 있다. 그리고 작품의 말미에는 ‘숨월십구일날/써늬이다/임신연’이라는 기록이 부기되어 있어 <낙향이별가>는 임신년(壬申年), 3월 19일에 쓰여진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낙향이별가> 이후에 수록된 제목 및 작자 미상의 소설작품은 등장인물과 내용을 토대로 살펴볼 때, 『김진옥전』이라는 고전소설의 일부분으로 추측된다.

[원문]

낙향이별가

낙향이별가라

위와시승 스람드라 이지말삼 드르보소

천지만물 삼권후의 사람이 엇듬이라

이상권후의 엄양이 삼겨놀지

삼광오습 엇듬이요 삼광요쥬 엇듬이라

삼광오삼 어늬중 스람이라 숨겨날지

엄양 다럼업서

엄은 여자되고 양운 남즈되고

복녹을 마흔홀지 슈춘기 다남즈라

남즈가 되오며 요쥬승여 므른하고

여즈 되오면 군즈을 므련하고

저셜노며 절숨마 킷연히로 후압시이

중후신고 부부지낙 그늬라셔 마다후라

약속홀스 니의안즈 여즈몸이 되여셔라
위문범절 우리집의 절히잇기 즈라느셔
열철팔시 도라든이 호인ᄇᄇ셔 나나구나
천송연분 미지라고 우단완니 후이ᄇᄇ티마는
여즈형실 부모명영 위이후리
실낭신부 연기기퍼 기릴양신 티길후이
도지요요 세러이요 용용명안 기려구야
고미린 후올적의 셔동부서 갈나셔
아미마는 고은티도 침니단중 황홀후다
동인외의 소바녹코 한잔술노 후미이진 후온후의
빙연계약 미진후의 일낙셔산 지연구느
분벽스총 저동방의 손슈평풍 돌너치고
명월습경 김훈후의 녹외업난 우리인정
후히로 부족이요 티산도 부족이라
금실우지 종종날일 오늘밤의 도라완니
총칭소리 놀니씩이 가신잇싸
동남동여 다리시고 신션초로 가신잇갓
딕장부의 기쁨슈우로 풍운화 공부후여
딕공을 이류라고 선칭초즈 가신잇싸
운담풍경 조흔고딕 소철초즈 가신잇싸
골물신 시간소리 보기시러 가신잇싸
익고답답 니죽간니 엇지후여 가신잇싸
연고업셔 가시신이 언지오시랴고 미리말을 후싯시면
기약업시 가시신이 언지올줄 아오릿가
무정후고 가싯의 가신다고 말후시면
후히갓튼 빙연전곡 티산갓치 삼심으약
굴고굴건 군치줄노 히히친친 감아밀걸
미정후이 니눈치 가시난줄 놀닌난고
익달후다 이팔청춘 칭이별이 무슴일고
남모르기 눈물이요 좀드잔전 후슴이라
연슈로다 연슈로다 단오이리 연슈로다
연스단오 도라오면 철석갓탄 니의간중
임의심각 간절후와 월티하용이 눈의삼삼
엄성소리 괴연징징
보고져라 보고져라 그리어라 그리어라
어너순풍 다시부르 후후옥슈 분여좁고
첩첩이 싸인 고말인소 히어나 청연십분의
일분이느 풀어볼고 무정후고 야속야속후오

춘산이 만스확허야 산이막허 못오시오
화운이 다기봉 손이막허 못오시오
니지훈숨 모와시면 동남풍이 될듯허는
흘어논 눈물미 노으며 한강슈가 되련마는
악슈숨철이 의정조가 쓰어지고
북희철니 몇몇곳되 혼안선이 막흐스 못오시오
남모려기 혼숨집고 넉넉시 업시안자
신이나리엄난 달기되고 일면가절 허다흔되
가절마다 눈물이요 칠월칠성 언하슈은
견징연만 닉건마는 엇지허여 이닌나년
흔변이별 돈절허고 녹슈의 워낭은
생생이도 가건만넌 엇지허여 이닌몸은
생생이도 못가난고
명월스충 저동방의 독슈공방 누엇신이
식벽역 참바람의 울고가는 기력구난
소리업시 안자사이 실푸기도 실푸도다
소리업시 울다가 혼숨집고 이러나셔
문을열고 나오면서 울고가난 기력구야
무숨소리 다허야 그리실피 울고가노
소승동경 조흔고되 이십헌 마다허고
평포로 황하허야 무궁물식 조흔고되
너난안이 갈되업셔이라
유정헌 우리임이 강산구경 가신잇가
닉임가 기신고되 가거들낭 이닌쇼히 일너다
기력구야 기력구야 인간빅로 믹물헌 김싱이라
너익심희 너날가갓튼 녹명소리 처총난흔되
너난 임익되로 가건마는
익달을스 의닉팔자 가련한 여조신시
심심구중 조라난셔 타인타성 짜라와서
임을 이별허고 문익문탈 어이홀고
분벽스창 저동방의 전전반칠기 누워신이
잠이오너 임도잠도 아이오이
춘하츄동 사시저릭 편할날리 전혀업고
한숨지외 눈물이요 눈물기워 혼숨이라
침침치랴 김푼봉의 잠미업시 누어신이
슈슈잠구 진미는 처량코도 처량허다
너익간중 녹난듯 점점이 실갓치
이닌말허 희익 짜라가셔 임기신되

문जू기무정니 니팔측측 뉘을딴히 설화홀고
간신니 말동흔가 노중기로 청힌는가
비려보시 비려보시
모도 다르다가 소만칠기 다마와노코
동서남북 험험기의 육갑으로 마가준들
훈우리아별 그던엔들 보올손 귀하야
넉넉즈는 시간살이불가 오릭가거 못홀지딴
점점흔 이니가장 쓰인간장 청손녹슈 구경하야
굽이굽이 쓰인소히 소소이 푸르보라
남촌북촌 동유드라 흐전노름 가자셔라
송송이 짜셔지니 남모로기 눈물홀너
익옥갓튼 두기미히 점점이 써르질지
낙화청손 점문놀이 실패우논 두견소리
구비구비 눈물이요 소리마다 훈숨이라
무정흔 두견시 뉘기부러 기로울건마난
유정흔 우리임은 혼변소식 절통하고
절기엄난 스람마다 가건마은 야속홀스
싱이별니 닉흔즈 썬이로다
눈물노 시월가이 시부모임 거동보소
쥬쥬야야 혼남마리 니언신눔아아
니가 절열키워 영화보기 바리드이
영화보기 고스하고 남의자식 되어다가
니팔측측 저목숨을 슈심으로 널키즈
훈숨소리 듯기신타 우난모양 보기신타
부모틴난지가 절통코로 절통하다
자식이 익물니라 어이홀고 어이홀고
익무리라 우리며날니 어이홀고
우지마라 우지마라 닉익며날이 우지마라
너익팔즈 글어타가 순종니 도라오면
눔의자식 올거시니 부딴부딴 그리마라
뉘울름 훈소리 닉늘거가는 닉익간장
눈물니여 갈발업셔 구비구비 다눅난다
시낭누 혼남말니 글니마오 글니마오
뉘라셔 소부철석간탄 뉘라셔 아오릿가
시승익 허단자미 부부지간 지리라
윙연기약 혼울적익 유즈손지 디리라
유즈유손 고스하고 부부지낙 흐스디니
절통코도 분흔마암 점점니 절통하오

니날올가 저날올가 쥘야좁좁 바릭든니
물결갓치 가난시월 어연간 칠연니라
초흔강둔 여즈팔즈 팔연니별 허연런니
가른허다 니닌난도 칠연니별 무숨일고
쥘석마다 리이기연 기연마다 썬가보고
연연솟 필디마다 슈심도 허리라
일일은 싱각허도 썬썬업다
야속흔 나이설맘 연이고디 의탁허여
솔고이 보시오 무정허오
어셔밥비 도라와서 나이모양 다시보소
이별이별 권이별 무숨일고
날마다 가고 가시거든 으셔밧비 도라와서
용천금 든는칼노 우리연분 썬너쥘오
강순구경 가시썬든 고만허고 도라오소
화루장이 가시썬든 왓다가 다시가오
부기허로 가싯거든 편지누마 전히쥘쥘오
풍월허로 가싯썬든 순풍의 비을타고
어셔밧비 도라오소
디공 바릭시고 선심초조 가시썬든
풍운 자바타고 슈식간의 도라오소
흥압출입 가시썬든 히국히 훈첼니라
구경인들 말의잇가 어셔밧비 도라오소
솟첼초즈 가싯썬든 봉접썬라 도라오소
발앵길의 부디오소
동손의 명월갓치 을년 도라오소
어스바람 길의무쳐 오소
어셔밧비 도라와서 니익소히 풀어쥘소
반달갓튼 안히강을 치울의히 다시볼고
니팔청춘 노기홍송 뉘을디히 단중허여
굽고고연 팔즈와미 뉘을디히 슈국홀고
도라오소 오소어셔 어셔밧비 도라와서
릭연황전 다시만나 유즈유손 허와논시
유전허야시며 그안니 조홀쇼야
숨월십구일날 썬누이다 임신연
오시오 여셔선육요 일곱은 칠시오
여덜면 팔시오 아홉은 구시오

☞리가 총을다라 허몽을 올나가이

청암절벽 송의쥬화 이잇시디
청흑칙학이 오락가락 유정흔디
청풍은 샹샹니 나라들고
문우의 현판을 부쳐시디
화산도 스이문이라 헛엇드라
청의동 스늑와이 조헛거날 방중의헛고
청후의도 스오시 글도빅오고 솟악을비와
황석공이 피심중의 통달하고도 헛칼씨늑법다
제갈양의 명셔지구을 쥬야공부 헛야만고
흥망을 심중의 두어느디라
일일은 인간스람이 오히포치 못헛거시
웃시상의 늑가도중 부이소임니 녑녀헛고
쏘헌 중원금지 헛거시웃 뒤중부소업 녑녀헛고

[현대역]

낙향이별가라

낙향이별가라

어와 세상(世上) 사람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천지(天地) 만물(萬物)1 생긴 후(後)에 사람이 으뜸이라
 이 생긴 후(後)에 음양(陰陽)2이 생겨날제
 삼광(三光)3 오성(五星)4 으뜸이오 삼광(三光) 요주(瑤珠)5 으뜸이라
 삼광(三光) 오성(五星) 어느 중(中) 사람이라 생겨날지
 음양(陰陽) 다름없어
 음(陰)6은 여자(女子)되고 양(陽)7은 남자(男子)되고
 복록(福祿)8을 마흔할지 수춘기 다 남자(男子)라
 남자(男子)가 되오면 요조숙녀(窈窕淑女)9 마련하고
 여자(女子) 되오면 군자(君子)를 마련하고
 저절로며 절삼아 백년해로(百年偕老)10 하옵시니
 장(壯)하신고 부부지락(夫婦之樂)11 그 뉘라서 마다하리
 약속(約束)할사 내의 앓아 여자(女子) 몸이 되어서라
 예문(禮文)12 범절(凡節)13 우리 집의 절행(節行)14있게 자나라서
 열칠팔(十七八) 시(時) 돌아드니 호인(媿人)서 나나구나
 천생연분(天生緣分)15 맺으라고 우단왔네 하이(悔)태마는
 여자(女子) 행실(行實)16 부모(父母) 명령(命令) 어이하리
 신랑(新郎) 신부(新婦) 연기(年紀)17 깊어 기릴 양신 택일(擇日)18 하니
 도지요요(桃之夭夭)19 세리이요 용용명안(容容明顏) 기러기야
 고매린 하울 적에 서동부서(壻東婦西)20 갈라서
 아미(蛾眉)21마는 고운 태도(態度) 침내단장(丹粧) 황홀(恍惚)하다
 동인 외에 꼽아 놓고 한잔 술로 한매이진 하온 후(後)에
 백년(百年) 계약(契約) 맺은 후(後)에 일락서산(日落西山)22 지는구나
 분벽사창(粉壁紗窓)23 저 동방(洞房)24에 산수(山水) 병풍(屏風) 둘러치고
 명월(明月)25 삼경(三更)26 깊은 후(後)에 낙외(落外) 없는 우리 인정(人情)
 하해(河海)27로 부족이오 태산(泰山)28도 부족이라
 금실우지(琴瑟友之)29종종 날일 오늘 밤에 돌아왔네
 창생 소리 놀라 깨니 가시니잇가
 동남동녀(童男童女)30 데리시고 신선(神仙) 찾으러 가시니잇가
 대장부(大丈夫)의 기쁨 수우로 풍운아(風雲兒)31 공부(工夫)하여
 대공(大功)32을 이루려고 선생(先生)찾아 가시니잇가

운담풍경(雲淡風景)33 좋은 곳에 꽃을 찾아 가시니잇가
 골물34신 세간35살이 보기 싫어 가시니잇가
 애고 답답 내 죽겠네 어찌하여 가시니잇가
 연고(緣故)36 없어 가시시니 언제 오시라고 미리 말을 하셨으면
 기약(期約)37 없이 가시시니 언제 올줄 아오릿가
 무정(無情)하고 가신 댁에 가신다고 말하시면
 항해(沈瀆)38같은 맹연전곡 태산(泰山)같이 삼생(三生)의약(約)39
 굵고 굵은 군치 줄로 히히 친친 감아 맬걸
 매정한 이 내 눈치 가시는 줄 놀렸는고
 애달하다40 이팔청춘(二八靑春)41 생이별(生離別)42이 무슨 일인고
 남 모르게 눈물ियो 잠드잔 전(前) 한숨이라
 원수(怨讐)로다 원수(怨讐)로다 단오일(端午日)43이 원수(怨讐)로다
 연사(年事) 단오(端午) 돌아오면 철석(鐵石)같은 내 애간장(肝腸)
 임의 생각(生角) 간절하와 월태화용(月態花容)44 이 눈에 삼삼45
 음성(音聲) 소리 귀에 쟁쟁(錚錚)
 보고싶어라 보고싶어라 그리워라 그리워라
 어너 순풍(順風) 다시 불어 흔흔 옥수(玉手)46 부여잡고
 첩첩(疊疊)이 쌓인 고말 인소 행여나 청연(淸緣)47 십분(十分)에
 일분(一分)이나 풀어볼고 무정(無情)하고 야속(野俗)48야속(野俗)하오
 춘산(春山)이 만사핵하여 산(山)이 막혀 못오시오
 화운(火雲)49이 다기봉(多起峰)50 산(山)이 막혀 못오시오
 나의 한숨 모았으면 동남풍(東南風)이 될듯하나
 흐르는 눈물이 놓이면 한강수(漢江水)가 되련만은
 악수 삼천리(三千里) 애정조가 끊어지고
 북해(北海) 천리(千里) 몇몇 곳에 해안선(海岸線)이 막혀서 못오시오
 남 모르게 한숨 짓고 넋넋이 없이 앉아
 신이 나래51 없는 님이 되고 일면(一面) 가절(佳節)52 허다(許多)한데
 가절(佳節)마다 눈물ियो 칠월(七月) 칠석(七夕)53 은하수(銀河水)는
 견직54연만 내건마는 어찌하여 이내 나는
 한번 이별(離別) 돈절(頓絶)55하고 녹수(綠水)에 위낭은
 생생(生生)이도 가건만은 어찌하여 이내 몸은
 생생(生生)이도 못가는고
 명월(明月) 사창(紗窓)56 저 동방(洞房)에 독수공방(獨守空房)57 누웠으니
 새벽녘 찬 바람에 울고 가는 기러기는
 소리 없이 앉았으니 슬프기도 슬프도다
 소리 없이 울다가 한숨짓고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오면서 울고가는 기러기야
 무슨 소리 다하여 그리 슬피 울고가노

소상(瀟湘) 동경(洞景) 좋은 곳에 이십헌 마다하고
평포로 향하느냐 무궁(無窮)58 물색(物色) 좋은 곳에
너는 아니 갈데없어이라
유정(有情)한 우리 님이 강산(江山) 구경 가시니잇가
내 님 가계신 곳에 가거들랑 이내 소회(所懷)59 일러다
기러기야 기러기야 인간(人間) 바로 매물한 짐승이라
너의 심회(心懷)60 너 나와 같은 나명소리 처창(悽愴)61난 한데
너는 님에게로 가건만은
애달을사 이내 팔자(八字)62 가련(可憐)63한 여자(女子) 신세(身世)
심심(深深) 구중(九重)64 자라나서 타인(他人) 타성(他姓) 따라와서
님을 이별(離別)하고 문애 문탈 어이할고
분벽사창(粉壁紗窓) 저 동방(洞房)에 전전반측(輾轉反側)65이 누웠으니
잠이 오나 임도 잠도 아니오니
춘하추동(春夏秋冬) 사시절(四時節)에 편할 날이 전혀없고
한숨지외 눈물이요 눈물기워 한숨이라
침침칠야(沈沈漆夜)66 깊은 밤에 잠이 없이 누웠으니
수수 잠구 진미는 처량(淒涼)코도 처량(淒涼)하다
나의 간장(肝腸) 녹는 듯 점점이 실갈이
이 말하 해에 따라가서 임 계신데
문주기 무정(無情)니 이팔청춘(二八青春) 뉘를 대해 설화(屑話)67할고
간신이 말 동한가 노중개로 청했는가
빌어보세 빌어보세
모두 데려다가 소만 칠기 다 모아 놓고
동서남북(東西南北) 험한기에 육갑(六甲)68으로 막아준들
한 우리 이별(離別) 그던엔들 보올 손 귀하여
넉넉지 않은 세간 살이 불가 오래 가거(家居)69 못할진데
첩첩(疊疊)한 이내 간장(肝腸) 싸인 간장(肝腸) 청산(靑山) 녹수(綠水) 구경하여
굽이 굽이 싸인 속이 소소이 푸르보라
남촌(南村)70 북촌(北村)71 동유(同類)들아 화전(花煎)72 놀음 가자서라
송송이 따서재니 남모르게 눈물 흘러
매옥(梅玉)같은 두기미해 점점히 떨어질지
낙화(落花) 청산(靑山) 젊은 날에 슬피우는 두견(杜鵑)73 소리
구비 구비 눈물이요 소리마다 한 숨이라
무정(無情)한 두견(杜鵑)새 누가 불러 그리 울건마는
유정(有情)한 우리 님은 한번 소식(消息) 절통(切通)하고
절개(節概)74 없는 사람마다 가것만은 야속(野俗)할사
생이별(生離別)이 내 혼자 뿐이로다
눈물로 세월(歲月)가니 시부모님 거동(舉動)75보소

주주야야(晝晝夜夜)76 하는 말이 니 언신농아아
 내가 저를 키워 영화(榮華)77보기 바랬더니
 영화(榮華)보기 고사(固辭)78하고 남의 자식(子息) 데려다가
 이팔청춘(二八靑春) 저 목숨을 수심(愁心)79으로 넘기자
 한숨 소리 듣기 싫다 우는 모양 보기 싫다
 부모(父母)된난지가 절통(切痛)코로 절통(切痛)하다
 자식(子息)이 애물80이라 어이할고 어이할고
 애물이라 우리 며느리 어이할고
 우지마라 우지마라 나의 며느리 우지마라
 너의 팔자(八字) 그럴다가 순종(順從)81이 돌아오면
 남의 자식(子息) 올 것이니 부디 부디 그리마라
 뉘 울음 한 소리 내 늙어가는 나의 간장(肝腸)
 눈물이여 갈바 없어 구비 구비 다 녹는다
 시낭누 하는 말이 그리마오 그리마오
 뉘라서 소부 철석(鐵石)같은 뉘라서 아오릿가
 세상(世上)에 허다(許多) 재미 부부지간(夫婦之間) 지리라
 맹연기약(期約) 하올 적에 유자(有子)82 손자(孫子) 드리라
 유자유손(有子有孫)83 고사(固辭)하고 부부지락(夫婦之樂) 허사(虛事)되니
 절통(切痛)코도 분(忿)한 마음 점점이 절통(切痛)하오
 이날 올까 저날 올까 주야(晝夜) 잠잠 바랬드니
 물결같이 가는 세월(歲月) 어연간 칠년(七年)이라
 초한(峭寒) 강준 여자(女子) 팔자(八字) 팔년(八年) 이별(離別) 하였러니
 가련하다 니내난도 칠년(七年) 이별(離別) 무슨일인고
 조석(朝夕)84마다 리이 기연(機緣)85 기연(機緣)마다 소가보고
 연연(年年) 꽃 필때마다 수심(愁心)도 하리라
 일일은 생각(生角)해도 쓸데없다
 야속(野俗)한 나의 설맘 어느 곳에 의탁하여
 살고이 보시오 무정(無情)하오
 어서 바빠 돌아와서 나의 모양(模樣) 다시보소
 이별(離別) 이별(離別) 긴 이별(離別) 무슨 일인고
 날마다 가고 가시거든 어서 바빠 돌아와서
 용천검(龍泉劍)86 드는 칼로 우리 연분(緣分)87 끊어주오
 강산(江山) 구경 가셨거든 그만하고 돌아오소
 화류장(花柳場)88에 가셨거든 왔다가 다시가오
 부귀(富貴)하러 가셨거든 편지(便紙)나마 전해주오
 풍월(風月)89하러 가셨거든 순풍(順風)에 배를타고
 어서 바빠 돌아오소
 대공(大功) 바라시고 선생(先生)찾아 가시거든

풍운(風雲) 잡아타고 순식간에 돌아오소
항암 출입(出入) 가셨거든 흰국화 한철이라
구경인들 말애있가 어서 바빠 돌아오소
꽃을 찾아 가셨거든 봉접(蜂蝶)90 따라 돌아오소
발앵길에 부디오소
동산(東山)에 명월(明月)같이 얼른 돌아오소
어긋 바람 길에 묻혀 오소
어서 바빠 돌아와서 나의 소회(素懷) 풀어주소
반달같은 아내감을 치울의해 다시 불고
이팔청춘(二八靑春) 녹의홍상(綠衣紅裳)91 누구를 대해 단장(丹粧)하여
곱고 고운 팔자아미(八字蛾眉)92 누구를 대해 수국할고
도라 오소 오소 어서 어서 바빠 돌아와서
백년(百年) 황전 다시 만나 유자유손(有子有孫) 하와는시
유전(遺傳)하야시며 그 아니 좋을소나
삼월(三月) 십구일(十九日)날 쓰나이다 임신년(壬申年)
오시오 어서 선육요 일곱은 칠시(七時)
여덟은 팔시(八時)오 아홉은 구시(九時)요

[각주]

- 1) 만물(萬物) : 세상에 있는 모든 것
- 2) 음양(陰陽) : 남녀의 성(性)에 대한 이치를 뜻하는 말.
- 3) 삼광(三光) : 해와 달과
- 4) 오성(五星) : 태양계에서 지구에 가까운 다섯 개의 별,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이른다.
- 5) 요주(瑤珠) : 아름다운 구슬.
- 6) 음(陰) : 음극, 역학에서 태극이 나뉜 두 기운 가운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면을 상징하는 철학 범주로 어둠, 땅, 달, 암컷, 차가움 따위로 나타난다.
- 7) 양(陽) : 양극, 역학에서 태극이 나뉜 두 기운 가운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면을 상징하는 철학 범주로 밝음, 하늘, 해, 수컷, 더움 따위로 나타난다.
- 8) 복록(福祿) : 타고난 복과 벼슬아치의 녹봉이란 뜻으로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이른다.
- 9) 요조숙녀(窈窕淑女) : 말과 행동이 품위가 있으며 얌전하고 정숙한 여자.
- 10) 백년해로(百年偕老) :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함께 늙음.
- 11) 부부지락(夫婦之樂) : 부부의 즐거움.
- 12) 예문(禮文) : 예법에 관하여 써놓은 글, 한 나라의 예법과 문물제도.
- 13) 범절(凡節) : 법도에 맞는 모든 질서나 절차.
- 14) 절행(節行) : 절개를 지키는 행실.
- 15) 천생연분(天生緣分) : 하늘이 정하여 준 연분.
- 16) 행실(行實) :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
- 17) 연기(年紀) : 대강의 나이.
- 18) 택일(擇日) : 어떤 일을 치르거나 길을 떠나거나 할 때, 운수가 좋은 날을 고름, 또는 그날, 이 작품에서는 혼인 날짜를 고르는 것을 뜻한다.
- 19) 도지요요(桃之夭夭) : 작고 고운 복숭아를 이른다.
- 20) 서동부서(壻東婦西) : 사위는 동편에 머느리는 서편에 즉, 남자는 동쪽에 여자는 서쪽에 서는 것을 뜻한다.
- 21) 아미(蛾眉) : 누에 나방의 눈썹이라는 뜻으로, 가늘고 길게 굽어진 아름다운 눈썹을 이르는 말이다. 즉, 미인의 눈썹을 이른다.
- 22) 일락서산(日落西山) : 해가 서쪽 산으로 지다.
- 23) 분벽사창(粉壁紗窓) : 하얗게 꾸민 벽과 비단으로 바른 창이란 뜻으로 여자가 거처하며 아름답게 꾸민 방을 이르는 말이다.
- 24) 동방(洞房) : 신방(神房), 즉 신랑, 신부가 첫날밤을 치르도록 새로 차린 방을 뜻한다.
- 25) 명월(明月) : 밝은 달.
- 26) 삼경(三更) : 하룻밤을 오경으로 나눈 셋째부분으로 밤 열한 시에서 새벽 한 시 사이이다.
- 27) 하해(河海) : 큰 강과 바다를 아울러 이르는 말.
- 28) 태산(泰山) : 높고 큰 산.
- 29) 금실우지(琴瑟友之) : 거문고와 비파처럼 벗하다.
- 30) 동남동녀(童男童女) :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
- 31) 풍운아(風雲兒) : 좋은 때를 타고 활동하여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 32) 대공(大功) : 큰 공적.
- 33) 운담풍경(雲淡風景) : 구름과 물의 풍경이 좋은 곳.
- 34) 골몰 : 골몰하다, 고달프다의 방언.
- 35) 세간 : 집안 살림에 쓰는 온갖 물건.
- 36) 연고(緣故) : 인연.
- 37) 기약(期約) : 때를 정하여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 38) 향해(沆瀣) : 한밤 중의 이슬 기운.
- 39) 삼생(三生)의약(約) : 삼생을 두고 끊어지지 않을 언약이란 뜻으로, 부부간의 인연을 이른다.
- 40) 애달하다 : 마음이 쓰여 속이 달아오르는 듯하게 되다.
- 41) 이팔청춘(二八靑春) : 16세 무렵의 꽃다운 청춘, 또는 혈기 왕성한 젊은 시절.
- 42) 생이별(生離別) : 살아있는 혈육이나 부부간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헤어짐.
- 43) 단오일(端午日) : 우리나라 명절 중 하나로 음력 5월 5일이다. 단오일에는 단오떡을 해먹고 여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며, 남자는 씨름을 한다.
- 44) 월태화용(月態花容) :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맴시를 이르는 말이다.
- 45) 삼삼 : 삼삼하다, 잊혀지지 않고 눈 앞에 보이는 듯 또렷하다.
- 46) 옥수(玉手) : 여성의 아름답고 고운 손.
- 47) 청연(淸緣) : 맑고 깨끗한 인연.
- 48) 야속(野俗) : 무정한 행동이나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섭섭하게 여겨져 언짢음.
- 49) 화운(火雲) : 여름철의 구름.
- 50) 다기봉(多起峰) : 많은 봉우리에 일어나다.
- 51) 나래 : 날개의 방언.
- 52) 가절(佳節) : 좋은 시절이나 계절 또는 좋은 명절을 뜻한다.
- 53) 칠석(七夕) : 칠석날, 음력으로 칠월 초이렛날의 밤으로 이때에 은하의 서쪽에 있는 직녀와 동쪽에 있는 견우가 오작교에서 일 년에 한 번 만난다는 전설이 있다.
- 54) 견직 : 견우 직녀.
- 55) 둔절(頓絶) : 편지나 소식 따위가 딱 끊어짐.
- 56) 사창(紗窓) : 사불이나 김으로 바른 창.
- 57) 독수공방(獨守空房) : 아내가 남편없이 혼자 지내는 것.
- 58) 무궁(無窮) : 공간이나 시간 따위가 끝이 없음.
- 59) 소회(所懷) : 마음에 품고 있는 회포(懷抱).
- 60) 심회(心懷) :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
- 61) 처창(悽愴) : 몹시 구슬프고 애달프다.
- 62) 팔자(八字) : 사람의 한 평생 운수, 사주팔자에서 유래한 말로 사람이 태어난 해와 달과 날과 시간을 간지(干支)로 나타내면 여덟 글자가 되는데, 이 속에 일생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본다.
- 63) 가련(可憐) : 가엾고 불쌍하다.
- 64) 구중(九重) : 아홉 겹이라는 뜻으로, 여러 겹이나 층을 이르는 말이다.
- 65) 전전반측(輾轉反側) :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 66) 침침칠야(沈沈漆夜) : 아주 가까운 거리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밤.

- 67) 설화(屑話) : 자질구레한 이야기.
- 68) 육갑(六甲) : 육십갑자.
- 69) 가거(家居) : 벼슬살이를 하지 않고 집안에만 박혀있음.
- 70) 남촌(南村) : 남쪽에 있는 마을, 조선시대에 서울 안에서 남쪽으로 치우쳐 있는 마을들을 통틀어 이르던 말.
- 71) 북촌(北村) : 북쪽에 있는 마을, 조선시대에 서울 안에서 북쪽으로 치우쳐 있는 마을들을 통틀어 이르던 말.
- 72) 화전(花煎) : 꽃전. 꽃잎을 따서 전을 부쳐 먹으며 춤추고 노는 부녀자의 봄놀이.
- 73) 두견(杜鵑) : 두견새.
- 74) 절개(節概) : 신념, 신의 따위를 굽히지 않고 굳게 지키는 깨끗한 태도.
- 75) 거동(舉動) : 몸을 움직임 또는 그런 짓이나 태도.
- 76) 주주야야(晝晝夜夜) : 밤낮으로.
- 77) 영화(榮華) :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남.
- 78) 고사(固辭) : 제의나 권유 따위를 굳이 사양함.
- 79) 수심(愁心) : 매우 근심함, 또는 그런 마음.
- 80) 애물 : 몹시 애를 태우거나 성가시게 구는 물건이나 사람.
- 81) 순종(順從) : 순순히 따름.
- 82) 유자(有子) : 자식이 있음.
- 83) 유자유손(有子有孫) : 아들, 손자 따위의 후손이 있음.
- 84) 조석(朝夕) : 아침 저녁.
- 85) 기연(機緣) : 어떤 기회를 통해 맺어진 인연.
- 86) 용천검(龍泉劍) : 옛날 중국의 장수들이 쓰던 보검.
- 87) 연분(緣分) :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 인연.
- 88) 화류장(花柳場) : 기생 등과 노는 곳.
- 89) 풍월(風月) : 음풍농월(吟風弄月),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대상으로 시를 짓고 흥취를 자아내어 즐겁게 노는 것을 이른다.
- 90) 봉접(蜂蝶) : 벌과 나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
- 91) 녹의홍상(綠衣紅裳) : 연두저고리에 다홍치마라는 뜻으로, 젊은 여자의 고운 옷차림을 이르는 말이다.
- 92) 팔자아미(八字蛾眉) : 팔(八)자 모양의 눈썹.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